

도시녹지 및 녹지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

A Survey on the Citizen Cognition of Green space and Creating
Green Space

-The Case Study of Gangneung-

박용진¹ · 김태경¹ · 한갑수¹

¹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I. 연구목적

도시녹지는 대기정화, 기후조절, 방음 등 환경조절기능과 도시경관향상을 통해 도시민의 건강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최근 도시성의 확산 및 심화에 기인한 건축 및 포장면적의 증가로 도시녹지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녹지의 감소는 곧 도시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여러 가지 도시환경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도시에서는 녹지 확보 및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릉시의 도시녹지 및 녹지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의식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도시녹지 환경조성에 기여할 기초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강릉시 도시계획구역내의 동지역을 비롯하여 주문진읍, 연곡면, 사천면, 옥계면 거주시민을 대상으로, 공원을 비롯한 녹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가로수, 공원, 녹지경관, 수종에 관련한 9개의 항목과 담장녹화, 담장허물기 등 녹지조성사업과 관련된 6개의 항목, 그리고 설문자 특성에 관련된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작성된 설문은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항목의 내용 및 그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4년 7월 방문면담을 통해 실시하였다. 총 2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통계 소프트웨어인 SPSS Ver. 10.0(SPSS Inc, 20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설문응답자 현황

설문응답자 260명 중, 동지역 거주자는 72%로 가장 많았고, 주문진읍 및 옥계면 거주자는 각각 13%, 8%를 차지하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29%, 공무원이 10%, 회사원이 9%를 차지하였고, 성별로는 남성이 48%, 여성이 52%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1%를 점유하여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30대 29%, 20대 29% 등의 순이었다.

2. 녹지의 인식도

강릉시의 가로수가 충분한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45%가 “보통”, 34%는 “부족하다”로 평가하였고, “충분하다” 및 “매우 충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하였다. 가로수 종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0%가 “보통”으로 응답하였고, 24%가 “싫다”, 14%가 “좋다”로 나타났다. 현재 가로수의 문제점으로는 “간판을 가린다”가 24%, “낙엽이 쌓여 지저분하다”가 20%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시설물을 가린다”도 18%로 나타나 상업용 간판과 교통시설물을 가리는 것이 가로수의 주된 문제점으로 응답하였다.

공원과 관련하여, 근접한 공원에 대하여, “적다” 및 “매우 적다”가 47%, 29%로 나타나 많은 응답자가 인근에 공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공원의 경우는 경포호수가 14%, 남대천이 10%로 나타났다. 거주지에서의 공원의 녹지량은 “부족하다” 49%, “매우 부족하다”가 14%로 나타났고, 녹지경관에 대하여도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은 4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내 녹지의 양과 경관의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응답자가 속한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수종으로 가로는 은행나무 13%, 소나무 12%, 뽕나무 4.6%, 히말라야시다 3.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 및 관광지의 수종은 다른 분포를 보여 소나무, 석류, 매실나무가 각각 5%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모과나무와 목백일홍이 각각 4%를 차지하였다.

3. 녹화사업에 대한 인식도

녹지가 불충분한 시가지 및 주택지에서의 옥상, 벽면 및 담장녹화에 대하여는 전

체 응답자의 68%가 찬성하며, 1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응답자가 녹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파악하였다. 녹화가 필요한 대상으로서는 학교가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공서 25%, 아파트 23%의 순이었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는 14%를 차지하였다. 담장허물기 사업실시에 대해 74%가 찬성하였으며, 그 대상으로서 관공서가 36%, 학교가 28%, 개인주택이 15.4%의 순이었다. 주택의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은 48%로 나타났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2%, 모르겠다는 응답이 31%를 차지하였다. 이중, 단독주택 거주자의 참여도를 보면, 단독주택 소유주인 경우는 “참여하겠다”와 “참여하지 않겠다”가 각각 36%로 대등하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8%로 나타나, 사업참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전월세 입주자의 경우는 “참여하겠다” 60%, “참여하지 않겠다”가 30%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향후 녹지조성사업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공원 및 관광지가 3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천 25%, 가로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많은 시민들은 가로수가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로수의 수관이 간판을 차단하고 낙엽에 의해 가로가 지지분해지는 것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향후 가로수의 양적 확보와 가로수 특성을 고려한 수종선정 및 관리가 요구된다. 공원의 경우, 대규모의 공원조성 보다는 거주지와 가까운 여러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거주자의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녹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벽면 및 담장 녹화, 담장허물기 사업은 녹지현황 파악을 통해 학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나가며, 점차 공동주택 등에도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요구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